



사노피, 만성·희귀난치성질환 환아들을 위한 희망 메신저 '2017 초록산타 상상학교' 시작

- 초록산타 상상학교, 만성·희귀난치성질환 환아 및 가족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주간 매주 운영
- 치료 과정에서 받는 정서적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서 케어' 목적
- 랩, 드로잉, 영상 제작 등 또래 친구들과 교감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

2017년 7월 5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제약사업부문인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와 공익문화창출형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이사장 홍명희)는 (재)다음세대재단(대표이사 방대욱)과 함께 7월 1일부터 8주 동안 '초록산타 상상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록산타 상상학교'는 아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서함양 교육 프로그램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달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에 질환을 겪는 아이들은, 장기간의 치료 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질환에 대한 관리와 함께 정서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사노피는 2013년부터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로 아픈 아이들을 위한 '초록산타 상상학교'를 운영해왔다. 만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표현력 향상, 자존감 형성, 잠재력 실현을 돕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운영되는 '2017 초록산타 상상학교'는 청소년 미디어 교육 전문 기관인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다. △그린스크린으로 합성하고 영상 더빙을 체험해보는 '그린 폴리 팝스몰 티비(GREEN FOLEY POP SMALL TV)' △자신을 슈퍼히어로 캐릭터에 빗대어 마음껏 상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드로잉 히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랩으로 만들어 녹음하고 불러보는 '랩을 나불나불' 등의 미디어 수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령별 맞춤 교육을 위해 13세 이하의 아동프로그램과 14세 이상의 청소년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사노피 배경은 대표는 "'초록산타 상상학교'가 아픈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춘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사노피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뿐 만 아니라 환자와 환자의 삶에 대한 관심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가게 이종욱 상임이사는 "'초록산타'는 특별한 운영모델을 가지고 있다"며, "사노피에서 기증받은 아름다운가게 강남구청역 매장의 일부 수익금이 '초록산타 상상학교' 운영기금으로 사용되면서, 이상적인 선순환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록산타'가 롤모델이 되어 새로운 사회책임활동에 대한 시도와 접근이 늘어나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나눔과 도움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8주간의 정규수업 이후에는 '초록산타 상상 놀이터(발표회)'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초록산타 상상학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초록산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greensanta2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록산타’는 신체적 아픔을 겪는 환아들이 치료 과정과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으로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책임프로그램이자, 국내 제약업계의 장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중의 하나이다. 2004 년 출범 이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관람 지원부터 2011 년 지속적인 ‘초록산타’기금마련을 위해 사노피가 아름다운가게 강남구청역점을 기증하였고, 2013 년부터 ‘초록산타 상상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

[참고자료] 2017 초록산타 상상학교 프로그램

- 대상: 만성질환·희귀질환·소아암 환아 및 치료 종결자(형제자매, 부모 참여)
- 기간: 2017년 7월 1일 ~ 8월 26일 매주 토요일 8회차
- 장소: 마이크임팩트 종로 스퀘어

시간	프로그램	
오전반 (10:30~12:30)	제목: GREEN FOLEY POP SMALL TV 그린스크린으로 합성하며 놀아보기, 영상 폴리(사운드)작업, 더빙놀이, 나와 다른 시선 카메라 달아보기 등 영상작업에 필요한 여러 작업들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해봅니다.	
오후반 (14:00~16:00)	제목: 드로잉 히어로 캐릭터 디자인, 드로잉이라는 매체에 바로 접근하기에 앞서서 캐릭터로 표현될 인물, 즉 자신에 대한 즐거운 경험, 해석을 선행하여 참여하는 학생들이 고유한 감각과 표현의 도구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슈퍼히어로 캐릭터에 투영하는 8주의 시간을 계기로 마음껏 상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며 친구들과 소통해 봅니다.	제목: 랩을 나불나불 소리를 수집해 비트를 만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랩으로 만들어 녹음하고, 함께 부릅니다. 래퍼가 되는 경험을 통해 즐겁고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일상의 소리와 자신의 이야기가 음악이 되는 과정을 경험해 봅니다.

<초록산타 상상학교>에 대하여

2013 년부터 시작된 ‘초록산타 상상학교’는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환아의 표현력 향상, 자존감 형성, 잠재력 실현을 돕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극, 미술, 글쓰기, 영상, 사진,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주제에 따라 연결하고, 자신 안에 숨겨진 이야기와 가능성을 탐색하게 돕는다. 이를 통해 질환 때문에 위축된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자신도 몰랐던 재능과 아름다움, 가능성을 발견하게 도움으로써 환아들의 건강한 자존감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록산타>에 대하여



‘초록산타’는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의 정서함양을 지원한다. 2004년 출범한 ‘초록산타’는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국내 제약사업부문인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이하 사노피)가 후원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업계의 대표적인 장수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아름다운가게와 협력하여 ‘초록산타 상상학교’를 통해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노피는 2011년 아름다운가게 강남구청역 매장(일명 초록산타점) 기증 및 정기적인 임직원 자원봉사 및 재활용 물품 기증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를 위해 우리시대 명사 100인이 추천한 <초록산타 아름다운 책장 100선>을 선정해 전국의 병원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환자 쉼터에 책장을 기증했으며, 서울시 내 7개 도서관에서 순회 전시를 진행한 바 있다.

사노피(Sanofi) 그룹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파리 (EURONEXT: SAN) 및 뉴욕 (NYSE: SNY)에 상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당뇨순환기사업부 (DCV), 전문의약품 사업부 (GEM), 스페셜티 케어 사업부 (사노피 젠자임), 백신사업부 (사노피 파스퇴르),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 (CHC) 등 5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노피(Sanofi) 그룹은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에 대하여

아름다운가게는 공익문화창출형 사회적 기업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세상만들기’를 미션으로 하고있다.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해 우리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식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426,027 명의 기증천사의 참여로 22,767,552 점의 기증품이 모였으며 57,632 명의 기부자, 매년 14,500 명의 활동천사(자원봉사자)가 함께 하며 모두가 함께 하는 나눔과 순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